

연구논문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사용

김인숙* · 임평자** · 김희순**

*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생활개선과

The Structure of Time Use by Rural Housewives and their Husbands

Kim, In-Sook* · Lim, Pyoung-Ja** · Kim, Hee-Soon **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eowon Univ.

** Home Economics Division, RD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ime use by housewives in rural households, and to compare the time use structure of housewives with that of their husbands. To attain this goals, we have selected 108 farmhouses considering agricultural area and size in 1993. Data was collected by observing how (i. e. ,doing what kinds of work) housewives and husbands spend time. Time use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 physiological time, socio-cultural time, household work time and agricultural labor time. The results in this study present a valuable insight to assuage the overloaded works of rural housewives.

The major results can be outlined as follows :

1. Rural housewives worked 1.2 times longer hours a day than their husbands did.
2. There existed a severe labour time imbalance between housewives and husbands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3. The time use patterns of housewives and husband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agricultural areas. Also, the education level of a housewife was associated with the length of her labor time.

Key Words : living time, labor time, time use structure, time managemen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하루의 생활내용을 시간으로 나눈 것을 생활 시간 또는 시간사용(김희숙, 1988)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이라고 알

려져 있는 시간은 사용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그 효율성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생활시간은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시간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조희금, 1990). 옛부터 우리나라 여성은 가부장적인 제도 하

에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여 왔는데, 가사분담이나 가족의 도움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여지는 요즘에도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사용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과 수입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도시의 취업주부들과는 또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도시주부는 자신의 시간을 수입노동에 투입하는 경우 가구소득에서의 자신의 기여부분이 뚜렷이 드러나는 반면, 농가주부는 자신의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많은 부분을 농업노동이라는 일종의 수입노동에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주부는 생활시간의 많은 부분을 무보수의 가사노동과 수입노동인 농업노동을 하면서 보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요 가정자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자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합리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려는 노력의 결과는 생활의 질 향상에 필요한 다른 가정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농가주부의 생활시간은 결합자원으로써 물적자원인 가정수입 뿐 아니라 인적자원인 가정관리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으며,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주부의 시간사용으로 벌어들여지게 되는 수입은 아직은 경영주, 즉 그들의 남편의 노력에 합산되어 계산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남편의 생활시간 사용내역과 주부의 그것을 비교해 보는 것은 실제로 농가생산 및 소득에서 주부의 정당한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온 생활시간 관련연구에서는 가정주부나 대학생과 같은 특정대상집단을 이루는 개별구성원의 시간사용 구조를 밝힌 것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농촌지역 가구의 주부와 그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시도는 소수집단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지역이 관련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점차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는 농가주부의 생활시간 사용내역을 남편의 그것과 비교하고, 각자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쌀을 중심으로 하는 미백농가를 전형적인 농가형태라고 보고, 농가 구성원의 생활시간은 농가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농사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1년을 모내기부터 추수까지의 바쁜 시기인 농번기와 추수 후부터 다음 모내기까지 비교적 한가한 시기인 농한기로 나누어 주부와 남편¹⁾의 생활시간 사용구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생활시간 연구에서 전혀 시도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며, 주부와 경영주의 균형적인 시간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과중한 농가주부의 노동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농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관리 지도를 위한 실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생활시간의 분류

하루의 생활내용을 담고 있는 생활시간은 그 내용이나 배분이 역사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서도 크게 다를 수 있고 (伊藤, 1983; 조희금, 1993에서 재인용), 또 조사목적이나 연구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같은 목적이라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김외숙 외, 1993). 그러므로 생활시간에 대

1) 본 연구대상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하 '경영주'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 연구가 생활실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행동을 어떻게 분류하는가가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조희금, 1993).

Rice와 Tucker(1986)는 생활시간의 분류를 크게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으로 나누고, 노동시간에는 수입노동, 가사노동, 자원노동시간을, 비노동시간에는 수면, 자유시간, 여가시간을 포함시켰다. Feldman과 Hornik(1981)은 노동과 노동이외의 비노동으로 분류하고, 후자에는 필수적인 일, 가사노동, 여가를 포함시켜 가사노동을 노동이 아닌 일로 분류하였다(홍향숙 외, 1994).

일본에서 159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시간 조사(1985년)에서는 생리적 생활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생활시간, 사회적 문화적 생활시간으로 나누고 각각을 다시 32개 활동들로 세분하고 있는데(伊藤, 1994), 이중 수입노동시간 안에는 직장에서의 식사 및 휴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또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24시간을 크게 수입생활시간과 소비적 생활시간으로 나누고 소비적 생활시간은 다시 생리적 생활시간, 가사적 생활시간, 사회 문화적 생활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의숙 외, 1993).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보면 13개의 대분류와 26개의 중분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기본목적의 하나가 효율적인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대한 분류, 즉 교제, 휴양, 여가활동, 신문·잡지·책,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합을 여가로 하여 비교적 상세히 하고 있으나, 일, 가사, 이동시간을 합해서 노동으로 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분류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되어있다(조희금, 1993).

조희금은 농촌지역을 전통농 지역과 상업농 지역으로 나누어 농촌주부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연구(1990)에서 생활시간을 크게 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과 생리적 시간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노동시간은 수입노동, 농업노동, 가사노동 이외의 노동을 수입노동으로 간주하였다.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

(1993)에서는 하루 생활시간을 생리적 시간, 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으로 나누고, 노동시간을 다시 가사노동시간과 수입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한편 농촌지역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매 5년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조사에서는 농업 및 농가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리적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가사노동 시간, 농업노동 시간으로 대분류하고 다시 각각의 시간을 세분하여 정리하고 있다(농촌진흥청, 1979 ; 1983 ; 1988 ; 1993).

시간사용연구 동향에 관한 고찰을 한 김의숙 등(1988)에서는 우리나라 가정관리학에서 다뤄진 시간사용 연구주제를 크게 시간사용구조에 관한 연구,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가사작업 간소화와 관련된 시간연구, 그리고 여가연구 등 4개로 나누어 볼 때 시간사용구조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간사용구조에 관한 연구는 1968년 대한가정학회지의 강신주 등의 '생활시간 관리의 실태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하루 24시간을 몇가지 활동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활동영역별 시간량을 실태조사하는데 그쳤으며, 안영희(1977)의 연구 이후 시간사용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 연구에서는 시간사용연구에 대해서 연구대상을 주부에만 치중하지 말고 전가족으로 확대해야 하며, 시간자료 수집방법으로 시간일기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2.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구조변화

생활시간의 사용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선 일차적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체계, 그 시대의 기술문화수준, 생활방식 등에 의해 시간사용이 규정되지만, 이와 더불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인 각 개인의 특성, 즉 성별, 취업여부와 직업유형 또는 직업지위, 학력, 성역할 태도 등과 개인이 속해있는 가족 특성, 즉 가족형태, 자녀의 수와 연령, 소

득수준 등에 따라 생활시간의 배분은 다양한 양상을 띤다. 이 중에서 기혼의 경우 각 개인의 생활시간 배분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별로서 남편과 아내는 그 시간구조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여부와 직업지위로 특히 부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이 자신의 생활시간 사용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원의 시간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이기영 등, 1994)고 하여 본 연구에서와 같이 농가주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간 사용구조 비교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농촌주부들은 경작면적이 넓을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며(조희금, 1989) 농업노동과 병행해야 하므로 짧은 시간내에 많은 량의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취업주부들의 이중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나 농촌주부들이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을 병행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으로 잘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차성란, 1995).

차성란(1995)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30분(270분)이고, 농업노동 시간은 4시간 52분(292분)으로 가사노동 시간과 합하면 평균 9시간 22분(562분)의 노동시간이 되어 매우 과중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주부의 경우 평균 9시간 5분(545분)의 수입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부연령, 주부 교육수준, 주부직업, 농의소득, 가족수, 결혼지속년수와 가정기기 이용정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가사노동 관련변수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전업주부가 38.3%나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농가주부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결과와의 직접 비교는 하지 않고자 한다.

조희금(1990)의 연구에서는 농촌주부의 1일 노동시간은 520분, 사회문화적 시간은 258분, 생리적 시간은 662분이고, 농사시기별로는 농번

기에는 평균 농업노동 시간은 287분, 가사노동 시간은 245분, 농한기에는 105분의 농업노동과 216분의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1979년부터 5년간격으로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의 구조변화를 표 1에 정리하였다. 먼저 농번기 주부의 노동시간은 해가 갈수록 감소추세를 나타내는데, 농업노동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반면 가사노동 시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경영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었는데, '79년부터 '88년까지 주부가 경영주에 비해 1.1배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번기에 주부는 경영주에 비해 꾸준히 더 많은 노동부담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문화적 시간을 보면 주부와 경영주 모두 '79년에 비해 '88년에는 29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시간 차이는 경영주가 주부에 비해 '79년 1.8배에서 '88년 1.5배로 나타나 주부의 증가폭이 약간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생리적 시간은 주부는 '79년보다 '88년에 71분이 늘어난 반면 경영주는 55분이 늘어났으며, 주부와 경영주의 시간차이도 '79년에 36분에서 '88년에는 20분으로 줄어들었다.

농한기를 비교해 보면 '83년에는 주부와 경영주 모두 노동시간이 다른 조사년도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9년에 비해서 '88년에는 부부 모두 약 30분 정도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이 중 농업노동 시간은 부부 모두에서 약간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가사노동 시간은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한기에도 역시 주부는 경영주에 비해 꾸준히 1.4배 정도의 노동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는 '79년의 2.8배에서 오히려 그 폭이 늘어나 '88년에는 4.3배로 나타나 갈수록 경영주의 가사노동에의 참여도가 더욱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문화적 시간 역시 농번기 때와 마찬가지로 경영주가 주부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79년에 95분이던 것이 '88년에는 무려 137분으로 늘어났고, '79년에는 주부가 경영주보다 적게 사용하던 생리적 시간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사용

이 '88년에는 주부가 더 길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줄어든 노동시간이 생리적 시간의 연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농가주부의 효율적인 사회문화적 시간사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연평균 생활시간 구조

를 비교해 보면 주부의 노동시간이 경영주의 그것보다 약 100여분 정도나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사노동에서의 차이가 매우 심각하여 농가 경영주의 가사작업에의 참여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구조변화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구조변화 (분 : %)

구 분		농 번 기		농 한 기		연 평 균	
		주 부	경 영 주	주 부	경 영 주	주 부	경 영 주
노동시간	'79	854(59.3)	769(53.4)	484(33.6)	358(24.8)	669(46.5)	563(39.1)
	'83	803(55.8)	711(49.4)	367(25.5)	159(11.1)	585(40.6)	435(30.2)
	'88	764(53.1)	685(47.5)	455(31.6)	329(22.9)	609(42.3)	507(35.2)
(농업노동)	'79	586(40.7)	753(52.3)	73(5.1)	212(14.7)	329(22.9)	483(33.5)
	'83	534(37.1)	688(47.8)	35(2.4)	119(8.3)	285(19.8)	403(28.0)
	'88	472(32.8)	647(44.9)	99(6.9)	247(17.2)	285(19.8)	447(31.0)
(가사노동)	'79	268(18.6)	14(1.1)	411(28.5)	146(10.1)	340(23.6)	80(5.5)
	'83	269(18.7)	23(1.6)	332(23.1)	40(2.8)	300(20.8)	32(2.2)
	'88	292(20.3)	38(2.6)	356(24.7)	82(5.7)	324(22.5)	60(4.2)
사회문화적 시간	'79	62(4.3)	111(7.7)	312(21.7)	407(28.3)	187(13.0)	259(18.0)
	'83	81(5.6)	131(9.1)	402(27.9)	614(42.6)	242(16.8)	372(25.8)
	'88	91(6.3)	140(9.8)	353(24.4)	490(34.0)	222(15.4)	315(21.9)
생리적시간	'79	524(36.4)	560(38.9)	644(44.7)	675(46.9)	584(40.5)	618(42.9)
	'83	556(38.6)	598(41.5)	671(46.6)	667(46.3)	613(42.6)	633(44.0)
	'88	595(40.6)	615(42.7)	632(44.0)	621(43.1)	609(42.3)	618(42.9)
계		1,440(100)	1,440(100)	1,440(100)	1,440(100)	1,440(100)	1,440(100)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지역은 농촌지역을 농업유형별로 크게 중간지대(경기도), 평야지대(전남), 산간지대(경북)의 세 지대로 나누고, 각 지대별로 해당지대

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군을 6개씩 선정한 다음, 각 군별로 2개 마을씩을 편의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마을별로 제시된 농가로서의 조건²⁾을 만족시키는 농가를 규모별로 대농, 중농, 소농 각 1호씩 하여 모두 108호를 편의선정하였으며, 각 농가별로 주부와 남편(이하 경영주라 함)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농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농가별 조건 : 주부와 남편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 ② 영농형태별 조건 중 미백농가 : 전 경지면적 중 논과 밭의 면적이 65% 이상인 농가로 한다.
- ③ 지대별 조건 : 중간지대(지역 내의 산과 들이 약 50% 정도인 지역), 평야지대(지역내의 들이 75% 정도 또는 이상인 지역), 산간지대(지역내의 산이 75% 정도 또는 이상인 지역)
- ④ 규모별 조건 : 대농(6,000평 이상), 중농(3,000평 이상 ~ 6,000평 미만), 소농(3,000평 미만)

조사기간은 농업경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농가생활의 특수성에 비추어 농번기(1993년 5월 10일 ~ 5월 29일 사이)와 농한기(1993년 2월 15일 ~ 2월 27일 사이)의 두 시기로 나누어 2차례에 걸쳐서 1농가당 정해진 기간 중 2일간씩을 택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보면 조사대상도에서 조사원으로 선발한 공무원(생활지도사)을 대상으로 조사요령과 농가선정요령을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조사대상 농가에 상주하면서 관찰조사법에 의하여 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내용을 미리 작성된 조사표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정해진 기간 중 해당농가의 가장 평상적인 날을 택해서 실시하도록 하였고,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즉 제사, 결혼, 생일, 그 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타지외출 따위가 있는 날은 피하도록 하였다. 이때 농가의 경우 도시가구와는 다른 생활내용을 보이므로 농휴일(農休日)이나 공휴일(共休日)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조사자가 하도록 하였다.

2. 생활시간의 분류

조사된 생활시간의 내용은 크게 노동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생리적 시간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가. 노동시간

(1) 농업노동시간 : 논일, 밭일, 양축, 영농준비(농기계 손질, 일꾼교섭, 종자관리), 과수작업, 시설원예작업, 농업노동 장소로의 이동 시간 등 농업에 관련된 노동부분에 들인 시간, 그 외 견업, 판매 및 구매에 소요된 시간.

(2) 가사노동시간 : 식생활 관리(식사준비, 설거지 등), 의생활 관리(빨래, 바느질, 다림질, 세탁된 옷 정리정돈 등), 주생활 관리(주택수선, 청소, 정리 및 정돈 등), 가족시중(육아, 학교자모회 참석 등), 가정관리(가계부 기록 등), 구매, 기타 가사일에 관련된 시간.

나. 사회문화적 시간

친지 및 이웃방문, 가족환담, 관공서(면사무소, 농협 관계일), 마을일(공동청소, 마을 이장일 수행 등), 종교활동, 손님접대, 독서, 라디오 청취, TV시청, 취미생활 및 오락(웃놀이, 화투놀이 등).

다. 생리적 시간

수면, 식사, 몸단장, 휴식, 의료관련 행위(병원, 약국 이용시간 및 이동시간) 등.

3. 자료의 분석

자료는 조사된 2일간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는데, 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내역을 비교하기 위하여 농번기와 농한기의 농사시기별로 세부 생활시간 각각에 대한 평균치와 백분율을 계산하였고, 다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는 상관분석과 중회귀분석(단계법)을 통하여 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고, 여기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에 대해서는 세부집단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와 같은 분석절차를 밟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먼저 실제값으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세부 생활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한 것은 자료가 주는 정보손실을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다시 여기서 나타난 영향변수에 대해서 명목변수화한 다음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것은 본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관리를 위한 생활개선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분석과정은 SPSS/PC+를 이용하여 주부와 경영주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가구의 일반상황

조사가구의 일반적 상황은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평균 가족수는 4.9명으로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사용

점차 줄어들어 가는 추세³⁾이지만 전국 평균치⁴⁾ 3.4명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치이고, 중간지대인 경기도가 5.3명으로 다른 지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부나이는 평균 43.6세로 남편의 46.7세보다 약 3세 정도 적었으며, 지대별로는 중간지대의 부부가 가장 젊었고, 주부학력은 평야지대인 전남 지역의 주부가 다른 지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은 연평균 13,333천원으로 전국 평균치 16,928천원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지대별로는 산간지대인 경북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평야지대인 전남지역이 가장 낮았다. 또한 경지면적은 평균 1.7ha로 전국 평균치 1.3ha보다는 훨씬 많았는데, 이는 표집과정에서 대농, 중농, 소농이 같은 비율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보유농기계수를 살펴본 결과, 평균 2.4대였으며, 중간지대가 가장 많고, 평야지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중시기별 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구조

조사가구 주부의 연중시기별 생활시간 사용내역을 표 3에서 살펴보면 연평균⁵⁾ 노동시간이 10시간 25분 정도(43.3%)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시간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였다. 그리고 다음이 생리적 시간 약 10시간(41.4%)으로 노동시간과 거의 비슷하였고, 사회문화적 시간은 3시간 20분 정도(15.3%)로 가장 적었다. 반면 경영주는 연평균 생리적 시간이 10시간 24분 정도(4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노동시간이 8시간 30분 정도(35.5%)였다. 이것은 노동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난 주부의 생활시간 내역과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즉 주부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였으나, 경영주는 농업노동의 비중이 7시간 45분 정도이지만 이 중 가사노동은 겨우 46분 정도에 불과하여 부부의 생활시간 사용유형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영주의 생활시간과 주부의 생활시간을 비교해 보면 주부는 경영주에 비해 연중 1일 평균 1.2배가 넘는 노동을 하고 있으며, 경영주는 주부에 비해서 1시간 20여분 정도 더 길게 사회문화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기별로는 농번기에는 주부의 노동시간이 13시간 정도(54.5%)로 1일 24시간의 반을 넘고 있는데, 이 중 농업노동시간은 8시간 15분(34.4%), 가사노동시간은 4시간 50분 정도(20.1%)였다. 여기에서 보면 농번기에는 주부의 노동시간이 이상적인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8시간보다 약 1.6배가 초과되어 과중한 노동부담을 안고있고, 이러한 노동부담은 상대적으로 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런데 경영주는 노동시간이 11시간

<표 2> 조사가구의 일반상황 (N : %)

구 분	경 기 전 남	경 북	계		
	(중간지대)	(평야지대)	(산간지대)		
가구수(호)	36	36	36	108	
가족수(명)	5.3	4.7	4.8	4.9	
주부나이(세)	40.4	47.5	43.0	43.6	
가장나이(세)	43.3	50.8	46.1	46.7	
주 부 학 력	국졸	9(25.0)	25(69.4)	16(44.5)	50(46.3)
	중졸	19(52.8)	6(16.7)	12(33.3)	37(34.3)
	고졸	8(22.2)	5(13.9)	8(22.2)	21(19.4)
가구소득(천원)	13,484	10,016	16,496	13,333	
경지면적(ha)	1.8	1.7	1.7	1.7	
농기계(대)	2.8	1.9	2.6	2.4	

3)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조사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그동안 5년 간격으로 시행되어 왔는데, 가족수는 선행조사였던 '79년에 6.4명, '83년에 5.4명, '88년에 5.0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4) 이하 '전국평균치'는 '93년 농가경제 조사결과 보고서의 자료에 의한 것이다.
 5) 여기서 연평균값은 농번기와 농한기 두시기의 생활시간 사용내역을 합하여 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것은 농가의 1년은 농사일을 중심으로 크게 농번기(6개월)와 농한기(6개월)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전제에 의한 것이다.

56분 정도(49.7%)로 주부의 노동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 적었으며, 사회문화적 시간과 생리적 시간은 주부에 비해 각각 30~40분 정도가 길어 70여분이나 길게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4시간 50분 정도나 되는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20여분에 불과한 경영주의 가사노동 시간을 비교하고, 경영주보다 긴 주부의 노동시간의 차이만큼 경영주의 생리적 및 사회문화적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비교해 보더라도 농번기 농가에서의 부부의 노동부담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반면 농한기에는 주부는 1일 7시간 45분 정도(32.2%)의 노동시간 중 가사노동 시간이 5시간 35분 정도(23.2%)였고, 농업노동 시간은 2시간 10분 정도(9.0%)로 가사노동시간이 약 2.6배 정도 길었다. 그리고 주부의 노동시간이 경영주에 비해 무려 2시간 38분 정도나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농업노동 시간은 경영주가 약간 길었으나 가사노동 시간은 농번기와 마찬가지로

4시간 20여분 정도나 차이나게 주부가 길게 사용하고 있어 농번기 때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농가주부는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영주에 비해 과다할 만큼 노동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자료는 질적인 면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지만 주부와 경영주의 세부 생활시간 사용에 대하여 단순히 양적비교를 해 본다면 농가주부는 연중 경영주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며, t-검증결과에서도 부부간의 노동불균형은 매우 극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주부의 경우 수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생리적 시간과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주부의 건강관리 면에서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부간의 심각한 노동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부와 경영주의 가사분담에 대한 지도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 연중시기별 생활시간 사용내역

(분 : %)

구 분	농 번 기			농 한 기			연 평 균	
	주 부	경영주	t 값	주 부	경영주	t 값	주 부	경영주
노동시간	785.32 (54.5)	715.89 (49.7)	9.79***	463.57 (32.2)	305.89 (21.2)	5.68***	624.44 (43.3)	510.89 (35.5)
(농업노동)	485.84 (34.4)	694.37 (48.2)	-6.12***	129.63 (9.0)	235.63 (16.3)	-11.24***	312.73 (21.7)	465.0 (32.3)
(가사노동)	289.48 (20.1)	21.52 (1.5)	23.78***	333.94 (23.2)	70.26 (4.9)	18.84***	311.71 (21.6)	45.89 (3.2)
사회 문화적 시간	111.90 (7.8)	142.23 (9.9)	-8.43***	328.13 (22.8)	467.40 (32.5)	-2.30*	220.01 (15.3)	304.82 (21.2)
생리적시간	542.78 (37.7)	581.88 (40.4)	-1.76	648.30 (45.0)	666.71 (46.3)	-3.11**	595.54 (41.4)	624.29 (43.3)
계	1,440 (100.0)	1,440 (100.0)		1,440 (100.0)	1,440 (100.0)		1,440 (100.0)	1,440 (100.0)

* P<0.05 ** P<0.01 *** P<.001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사용

표 4에서 주부와 경영주의 세부 생활시간간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농번기에는 주부와 경영주의 가사노동 시간간과 생리적 시간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한기에는 이들 생활시간은 부부간에 약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 외에 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은 농번기와 농한기에 모두 부부간에 약간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일정한 노동력으로 일정한 노동량을 수행해야 하는 농가

의 경우에는 주부와 경영주의 노동시간은 대체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농번기에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간에 유의차가 없는 것은 농업노동은 부부가 함께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사노동은 주부만의 몫으로 남아 있게 되기 때문이며, 비록 유의차는 인정되고 있으나 농번기 부부간의 사회문화적 시간에 대한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것은 주부와 경영주의 사회문화적 시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4〉 농번기/농한기 세부 생활시간간 상관관계

주 부	경영주		전체노동시간		(농업노동)		(가사노동)		사회문화적시간		생리적시간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	농한기
전체노동시간	.399***	.419***										
(농업노동)			.312***	.376***								
(가사노동)					.145	.338***						
사회문화적시간							.244**	.438***				
생리적시간										.168	.334***	

* P<0.05 ** P<0.01 *** P<0.001

3. 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앞서 표 5에서 독립변수로 채택할 가구변수를 중심으로 상관계수를 구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보면 경영주나이와 주부나이, 그리고 경영주학력과 주부학력의 상관

이 각각 0.95와 0.68로 매우 높아 다공선성의 위험이 있어 이 중 주부나이와 주부학력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그 외에 가족수와 주부나이, 주부나이와 주부학력, 주부나이와 보유 농기계수, 경지면적과 가구소득 및 보유농기계수 변수간에는 상관정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가에서는 각각이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 본 연구를 위한 변수로 채택하였다.

〈표 5〉 가구변수간 상관관계

구 분	X ₁ 가족수	X ₂ 5세미 만자녀	X ₃ 경영주나이	X ₄ 경영주학력	X ₅ 주부나이	X ₆ 주부학력	X ₇ 가사보조자	X ₈ 경지면적	X ₉ 가구소득	X ₁₀ 보유농기계
X ₁	1.00									
X ₂	0.24 **	1.00								
X ₃	-.44 **	-.27 **	1.00							
X ₄	0.22 *	0.11	-.44***	1.00						
X ₅	-.48***	-.26 **	0.95***	-.42***	1.00					
X ₆	0.20 *	0.20 *	-.55***	0.68***	-.53***	1.00				
X ₇	0.11	0.12	0.07	-.01	0.06	-.06	1.00			
X ₈	0.25 **	-.03	-.28 **	0.31***	-.25 **	0.31 **	-.12	1.00		
X ₉	0.20 *	-.09	-.36***	0.26 **	-.33***	0.23 **	-.15	0.46***	1.00	
X ₁₀	0.24 **	0.01	-.52***	0.42***	-.49***	0.43***	-.17 *	0.46***	0.22 *	1.00

* P<0.05 ** P<0.01 *** P<0.001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촌가정의 특성으로 가정적 특성인 가족수, 주부나이, 주부학력, 5세미만 자녀의 유무, 가사보조자의 유무를, 사회적 특성으로 영농지대를, 경제적 특성으로 농가규모, 경지면적, 가구소득 및 보유 농기계수를 독립변수⁶⁾로 채택하였다. 그리고는 중회귀분석⁷⁾을 통하여 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먼저 주부와 경영주의 생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⁸⁾한 결과, 농한기에는 주부의 생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변수는 없으며, 농번기에는 중간지대에 비해서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주부의 생리적 시간이 길게($\beta=.312$) 나타났다. 그리고 경영주는 농한기에 중간지대에 비해서 산간지대에 거주할수록 생리적 시간이 짧았으며($\beta=-.284$), 농번기에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생리적 시간이 길었으나($\beta=.240$), 보유 농기계가 많을수록 생리적 시간은 짧아지는 것($\beta=-.291$)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주부와 경영주의 사회문화적 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수 중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영주의 경우 농번기에 중간지대에 비해서 평야지대($\beta=.489$)나 산간지대($\beta=.234$)에 거주할수록 사회문화적 시간을 더 길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주부와 경영주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표 6에서 살펴 보았다.

농한기에는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 중간지대에 비해서 산간지대에 거주할수록 대농에 비해서 소농일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짧았으며, 주부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표 6〉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β 값)

구 분	농 한 기		농 번 기	
	주 부	경 영 주	주 부	경 영 주
평 야 지 대			-.326 **	
산 간 지 대	-.239*		-.260 *	
가 족 수				-.234*
주 부 나 이				-.286*
주 부 학 력	.268**			
보유농기계수				.211
경 지 면 적		.351		
소 농	-.237*			
가사보조자있음				.242
5세미만자녀있음	.371***	.206	.166	
F 값	5.449***	1.189	4.343***	2.029*
R ²	.408	.131	.354	.204

* P<0.05 ** P<0.01 *** P<.001

주) R²는 전체독립변수를 투입변수로 하여 계산한 것임.

가구일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중간지대에 비해서 평야지대가 아니거나 산간지대가 아닐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간지대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경영주의 경우에는 농한기에는 유의한 변수가 없었으며, 농번기에는 가족수가 적을수록 주부나이가 젊을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지대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경영주는 가족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주부와 경영주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 6) 영농지대(중간지대를 기준으로 평야지대와 산간지대로)와 농가규모(대농을 기준으로 중농과 소농으로), 그리고 5세 미만 자녀유무와 가사보조자의 유무는 명목변수로하여 가변수처리하였다.
- 7) 본 연구에서 적용한 중회귀분석은 단계별로 채택한 독립변수 모두를 투입변수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세부생활시간과 최종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만 본문의 표에 제시하였다.
- 8) 중회귀분석과 분산분석 결과제시에서 생리적 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가 거의 없어서 별도로 표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으로 대신하였다.

주부와 경영주의 농업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한기 주부의 경우 주부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농업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표 6의 주부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길게 나타난 점과 연관지어 해석해 보면 고학력주부는 농촌출신이 아니거나 농촌지역을 떠나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 힘들고 거친 농업노동에 종사하기 보다는 도시 지역 주부와 같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경지면적이 적을수록 농업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결과로부터 경지면적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인지의 여부에 따라 농업노동 시간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반면 경영주의 경우 농한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으나, 농번기에는 중간지대에 비해서 평야 지대가 아닐수록 또한 중간지대에 비해서 산간 지대가 아닐수록 농업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농번기 주부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일치하지만 농번기 경영주의 사회문화적 시간의 영향변수와는 반대양상을 띠는 것이다.

〈표 7〉 농업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β값)

구 분	농 한 기		농 번 기	
	주 부	경 영 주	주 부	경 영 주
평 야 지 대			.248	-.362 **
산 간 지 대				-.313 **
주 부 학 력	-.262*	-.221		-.220
가 구 소 득		.248		
경 지 면 적			-.360 **	
중 농	.269		.269	
가사보조자있음				-.190
5세미만자녀있음	.197			
F 값	1.851	2.034*	2.870 **	2.799 **
R ²	.189	.204	.266	.261

* P<0.05 ** P<0.01 *** P<.001

주) R²는 전체독립변수를 투입변수로 하여 계산한 것임.

이상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가의 가구 특성 변수 중 지대변수가 세부 생활시간에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한기보다는 농번기에 더욱 두드러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는 어느 지대에 거주하고 '있느냐가 그들의 생활시간 사용구조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다음으로 가족수, 영농규모, 주부학력과 주부나이, 그리고 보유농기계수와 5세 미만 자녀의 유무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가구특성별 세부집단의 생활시간 사용내역

본 연구결과에 대한 생활개선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서 실시한 중회귀분석 결과 각 세부 생활시간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지대, 가족수, 영농규모, 주부학력과 나이, 보유농기계수와 5세 미만 자녀의 유무변수에 대해서는 세부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세부집단화 하는 과정에서 원자료의 성질이 다소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각각의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분산분석 결과, 세부 생활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회귀분석의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었다.

주부와 경영주의 생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변수의 세부집단간 차이를 보면 농번기 주부의 경우에서만 거주지대 변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산간지대 주부(580.60분)가 가장 긴 생리적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중간지대 주부(487.18분)가 가장 짧았으며, 산간지대 주부와 평야지대 주부(560.56분)는 DMR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경영주의 생리적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또한 주부와 경영주의 사회문화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변수의 세부집단간 차이를 본 결과, 농번기 경영주의 경우에서만 세부 집단간에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여기서는 농번기에 경영주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평야지대(196.78분)에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약 1시간여 차이를 보이는 산간지대(136.60분) 경영주가 길었으며, 중간지대(93.31분) 경영주가 가장 짧았다. 그런데 DMR사 후검증 결과 중간지대와 산간지대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음 표 8에서는 주부와 경영주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변수의 세부집

단간 차이를 보았는데, 주부의 경우 농번기에 지대, 가족수와 주부나이 변수가 0.1% 수준에서 세부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주부 학력, 보유농기계와 5세 미만자녀의 유무 변수는 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지대를 기준으로 한 평야지대와 산간지대의 가변수에서만 부적 유의성이 나타난 회귀분석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번기

〈표 8〉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변수의 세부집단별 차이(분)

구 분 (N)		농 한 기		농 번 기	
		주 부	경 영 주	주 부	경 영 주
지 대	중간 (36)	380.21 a	66.44	370.68 a	11.15 b
	평야 (36)	323.17 b	85.20	239.54 b	20.51 b
	산간 (36)	298.43 b	59.08	258.22 b	32.90 a
	F 값	4.933 **	1.255	9.548 ***	2.877 *
가 족 수	3명이하(16)	304.13 b	70.34	199.81 b	18.31
	4~5명 (56)	306.42 b	67.91	271.30 b	25.06
	6명이상(36)	389.99 a	73.88	357.61 a	17.44
	F 값	6.829 **	0.073	8.086 ***	0.470
영 농 규	대 농 (36)	364.90	72.88	319.76	24.43
	중 농 (36)	337.35	78.60	296.65	19.24
	소 농 (36)	299.56	59.31	252.03	20.90
	F 값	2.912	0.669	1.975	0.162
주 부 학	국졸이하(50)	286.54 b	70.96 ab	244.98 b	25.13
	중 졸 (37)	360.23 a	51.34 b	297.85 b	13.64
	고졸이상(21)	400.45 a	101.93 a	380.69 a	26.83
	F 값	9.743 ***	3.418 *	6.980 **	1.153
보유 농 기 계	2대이하 (55)	318.33	55.83	260.88 b	15.10
	3 대 (27)	348.91	87.94	276.04 b	22.37
	4대이상 (26)	351.40	82.42	363.94 a	34.23
	F 값	0.994	2.318	4.715 **	2.149
5세 미만 자녀	없 다 (100)	319.61	66.63	278.85	21.97
	있 다 (8)	513.07	115.69	422.31	15.94
	F 값	24.545 ***	3.475	7.338 **	0.174
주 부 나 이	35세이하(17)	418.47 a	82.47	407.82 a	28.79
	36~45세 (46)	343.52 b	62.96	304.66 b	24.27
	46~55세 (33)	292.23 c	72.09	251.03 bc	16.47
	56세이상(12)	292.13 c	75.92	169.38 c	14.58
	F 값	5.570 **	0.342	8.659 ***	0.570

* P<0.05 ** P<0.01 *** P<0.001

주) 영문자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의 결과이며, 다른 문자는 서로 다른 집단을 의미함.

에 지대별로는 중간지대 주부가 평야지대와 산간지대 주부에 비해 2시간여가 넘는 가사노동을 하고 있고, 가족수별로는 6명 이상인 가족의 주부가 그 미만인 가족의 주부에 비해 1시간 반에서 2시간여나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부학력 변수에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뚜렷이 볼 수 있는데,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의 경우가 국졸 이하의 주부에 비해 2시간 20여분이나 긴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나이별로는 젊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는데, 35세 이하 주부가 56세 이상 주부에 비해 4시간 정도가 긴 가사노동시간을 나타내어 젊은 주부일수록 가사일에 보다 충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유농기계 가 많은 가정의 주부일수록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농반기에는 주부학력 변수와 5세 미만 자녀의 유무변수가 0.1% 수준에서 세부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지대, 가족수와 주부나이 변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분석에 사용한 변수 중 영농규모가 포함되는 대신 가족수와 주부나이 변수가 제외된 회귀분석 결과와 역시 부분적으로만 일치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대별로는 중간지대주부가 농반기에 비해 10분정도 더 길면서 연중 가장 길게 가사노동을 하고, 또한 세 지대 중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평야지대 주부는 농반기에 비해 80여분, 산간지대의 주부는 40분을 더 길게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경영주의 경우 농반기에는 지대와 5% 수준에서, 주부학력과는 1% 수준에서 세부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농반기에는 주부학력에서만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농반기에 가족수와 주부나이 변수가 부적 영향을 미치고, 농반기에는 유의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은 회귀분석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라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반기에 경영주는 산간지대에서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길

게 나타나 있어 3개 지대 중 농반기에 가장 짧은 가사노동 시간을 소비하는 산간지대 주부의 경우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주부학력이 높을수록 경영주의 가사노동 시간이 길게 나타난 점은 주부의 경우와 같은 결과였다. 한편 농반기에는 주부학력이 고졸이상인 가구의 경영주가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길어서 주부의 경우와 같았으나, 중졸 주부가정의 경영주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부와 다른 양상이었다.

주부와 경영주의 농업노동시간에 대해 정리한 것이 다음 표 9이다. 여기에서 보면 농반기에 주부는 주부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갈수록 농업노동 시간이 길어서 가장 짧게 나타난 고졸 이상 주부와 국졸이하 주부의 시간차이는 무려 2시간 40여분이나 되었으며, 이는 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차를 보였고, DMR 검증 결과 고졸이상 주부의 경우만이 6시간대일 뿐, 다른 두 집단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파충한 농업노동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나이 변수에서는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9시간이 넘는 농업노동을 하고, 가장 젊은 35세 이하 집단에서는 6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수가 3명 이하집단의 주부가 10시간이 넘는 농업노동을 하는 반면 4명이상 가정의 주부는 7~8시간 정도의 농업노동을 하여 5%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대변수 역시 5% 수준에서 세부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중간지대의 주부가 7시간여 정도로 가장 농업노동 시간이 짧고, 평야지대 주부는 농업노동에 9시간 정도나 소비하고 있었다. 5세미만 자녀의 유무에서는 없는 가정의 주부가 있는 가정의 경우보다 2시간 정도나 더 농업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기계를 적게 보유한 농가집단 주부가 많이 가진 집단의 주부보다 거의 2시간 정도나 더 농업노동을 하고 있어 농기계의 보유 정도가 주부의 농업노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회귀분석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이다.

반면 농한기에는 지대, 주부학력과 5세 미만 자녀의 유무변수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농번기와는 약간 양상이 다른데, 먼저 지대별로 보면 산간지대의 주부가 평야지대 주부보다 농업노동 시간이 길었으나, 중간지대 주부가 가장 짧은 것은 농번기 때와 같았다. 또한 주부학력이 국졸이하로 낮은 집단의 주부가 고졸 이상인 주부에 비해 거의 2시간 정도나 농업

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농번기 때와 같은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5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구의 주부가 있는 가구주부보다 2시간 정도나 길게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자녀가 있으면 농업노동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농가실정을 알 수 있었다.

〈표 9〉 농업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변수의 세부집단별 차이(분)

구 분 (N)		농 한 기		농 번 기	
		주 부	경 영 주	주 부	경 영 주
지 대	중간 (36)	92.78 b	229.69 b	439.94 b	759.32 a
	평야 (36)	113.49 ab	168.13 b	542.63 a	644.63 b
	산간 (36)	182.63 a	309.06 a	504.94 ab	679.15 b
	F 값	3.542 *	7.071 **	3.477 *	7.211 **
가 족 수	3명이하(16)	153.06	221.38	605.44 a	743.94
	4~5명 (56)	140.51	224.46	489.60 b	678.24
	6명이상(36)	102.25	259.32	456.84 b	697.42
	F 값	0.899	0.533	4.544 *	1.416
영 농 규 모	대 농 (36)	103.54	244.65	482.79	732.93
	중 농 (36)	132.11	213.85	473.00	678.39
	소 농 (36)	153.24	248.38	531.72	671.78
	F 값	0.949	0.452	1.224	2.147
주 부 학 력	국졸이하(50)	169.44 a	539.65 a	539.65 a	691.39
	중 졸 (37)	117.69 ab	504.55 a	504.55 a	720.93
	고졸이상(21)	55.88 b	376.17 b	376.17 b	654.64
	F 값	4.492 *	7.689 ***	7.689 ***	1.563
보유 농 기계	2대이하 (55)	139.10	230.94	529.14 a	688.25
	3 대 (27)	126.76	236.30	503.89 ab	693.91
	4대이상 (26)	112.58	244.85	417.04 b	707.77
	F 값	0.266	0.060	4.054 *	0.172
5세 미만 자녀	없 다 (100)	139.20	236.15	278.85	695.34
	있 다 (8)	10.00	229.06	422.31	682.25
	F 값	5.466 *	0.013	7.338 **	0.065
주 부 나 이	35세이하(17)	115.26	274.12	369.88 c	653.06
	36~45세 (46)	116.96	251.57	475.39 b	712.80
	46~55세 (33)	145.85	200.94	551.17 a	695.02
	56세이상(12)	153.96	215.38	600.50 a	680.42
	F 값	0.371	0.959	6.936 ***	0.808

* P<0.05 ** P<0.01 *** P<0.001

주) 영문자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의 결과이며, 다른 문자는 서로 다른 집단을 의미함.

농번기에 경영주의 농업노동 시간은 지대변수에서만 세부집단간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주부와는 달리 중간지대 경영주가 12시간 40분 정도나 농업노동에 소비하는 반면, 평야지대 경영주의 농업노동 시간이 10시간 44분 정도로 가장 짧게 나타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경영주가 농업노동에 많이 종사할수록 주부의 농업노동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한기에 경영주의 농업노동 시간과는 지대변수가 1% 수준에서, 주부학적 변수가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대변수에서는 산간지대 경영주가 5시간이나 농업노동에 소비하는 반면, 평야지대의 경우는 2시간 48분 정도로 농한기 경영주의 농업노동 시간은 지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주부와 경영주의 농업노동 시간을 합해보면 농번기에는 각 지대별로 거의 비슷한 시간을 나타낸 반면, 농한기에는 산간지대가 8시간이 넘었고, 평야지대는 4시간 40분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났다. 이는 산간지대의 경우 작물재배에 손길이 많이 가는데도 기계화가 아직 덜 되어 있는 발작물을 농한기에도 계속 재배하기 때문이고, 평야지대는 농한기에는 특별히 재배하는 작물이 없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주부학적 변수를 보면 주부와 마찬가지로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영주가 농업노동 시간이 길고, 높은 집단은 농업노동 시간이 짧게 나타나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쌀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가의 주부와 그들의 남편, 즉 경영주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시간을 농사시기별로 농번기와 농한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간사용 실태와 사용시간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그들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를 위하여 중간지대, 평야지대, 산간지대에서 모두 108호 농가를 선정하여 각 농가별로 주부와 경영주의 2일간의 생활시간을 관찰조사법에 의해서 기록

한 다음, 이를 생리적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그리고 노동시간으로 나누고, 노동시간은 다시 농업노동 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으로 세분하여 정리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농가주부는 연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 25분 정도이고, 경영주는 8시간 30분 정도로 주부의 노동시간이 경영주에 비해 길었다. 이 중 주부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시간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반면, 경영주는 46분에 불과한 가사노동 시간을 뺀 나머지는 모두 농업노동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주부는 경영주에 비해 연중 1일 평균 1.2배가 넘는 노동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영주는 주부에 비해서 1시간 20여분이나 긴 사회문화적 시간을 보여 주었다.

2. 농사시기별로 보면 농번기에는 주부의 노동시간이 13시간 정도로 이상적 노동시간이라고 보는 8시간에 비해 무려 1.6배나 초과하고 있으며, 경영주는 12시간이 못되는 노동시간 사용으로 농번기 농가의 부부간에 심한 노동부담의 불균형을 알 수 있었다. 농한기에도 주부는 경영주에 비해 2시간 40분 정도나 긴 노동을 하며, 농번기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의 대부분은 주부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부와 경영주의 세부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회귀분석 결과, 생리적 시간은 농번기 주부의 경우 중간지대에 비해서 산간지대에 거주할수록, 경영주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보유농기계수가 적을수록 길어지고 있었다. 농한기에는 주부의 생리적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으나, 경영주는 중간지대에 비해서 산간지대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시간은 농번기 경영주의 경우에는 유의한 변수가 나타나 중간지대에 비해서 평야지대이거나 산간지대일수록 길어지고 있다.

4. 가사노동 시간은 농번기 주부의 경우 중간지대에 비해서 평야지대가 아니거나 산간지대가 아닐수록, 경영주는 가족수가 적을수록 주부나 이가 짧을수록 길어지고 있으며, 농한기 주부의

경우에는 중간지대에 비해서 산간지대가 아닐수록 주부학력이 높을수록 대농에 비해서 소농이 아닐수록, 그리고 5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길어지고, 경영주의 가사노동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농업노동 시간은 농번기 주부의 경우 경지면적이 좁을수록, 경영주는 중간지대에 비해서 평야지대가 아니거나 산간지대가 아닐수록 길어지고, 농한기 주부의 경우 주부학력이 낮을수록 길어지며, 경영주의 농업노동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5. 가구특성별 세부집단의 생활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 지대변수는 농번기 주부의 생리적 시간에서, 농번기 경영주의 사회문화적 시간에서, 농번기 주부와 경영주, 그리고 농한기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에서, 세부집단간에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농업노동 시간은 주부와 경영주의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6. 지대변수 다음으로 주부학력 변수는 학력 수준이 높으면 가사노동 시간은 길어지고 농업노동 시간은 짧아지는 결과를 보여 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농기계의 보유정도는 주부의 농업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결과에 의하여 합리적인 농가 시간관리 지도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농가의 경우 바쁜 농번기에는 각 농가당 감당해야 하는 총노동량이 있다. 즉 일정한 량의 농업노동과 늘 주어지는 가사노동이 있는데, 이것을 주부와 경영주가 나누어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부의 경우에는 연중 하는 가사노동에다 농번기에 부가되는 농업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농업노동이 주업인 경영주의 보조자로서 가사노동에 우선하는 농업노동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농가에서의 주부와 경영주의 노동불균형은 매우 심각하게 되는데, 이는 농번기에도 농가주부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결국 농가주부의 건강을 해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여성이 주로 맡게 되는 발작업의 작업자세와 농가주택구조가 도시지역에 비해 불편하고 재래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불

량해지기 쉬운 가사노동의 작업자세 면과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농가에서의 전반적인 시간관리 지도는 단순히 긴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이 아니라 농가가 안고있는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주 거론되어 온 가사분담의 실천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앞서 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해서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다루지 않았으나 노동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사기구 및 농기계를 적극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줄어든 노동시간을 대체하여 사용하게 되는 사회문화적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문화공간의 확보나 교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의 제공, 그리고 농가 특유의 전통을 살리면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놀이문화의 개발, 보급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의숙 · 이기춘, 1988,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3):171-187.
- _____ · 이기영 · 최은숙, 1993,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
- 농촌진흥청, 1979;1983;1988;1993,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보고서.
- 이기영 · 이승미, 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11-26.
- _____ 의 3인, 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31-46.
- 이정덕, 1991,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변화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사용

- 203-221.
- 임정빈, 198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73-88.
- 조성은·문숙재, 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95-112.
- 조희금, 1990,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163-180.
- _____, 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101-112.
- 차성란, 1995,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 만족도 및 가사노동 가치인식 사이의 관계, 생활과학연구, 제 1집(창간호): 11-22, 대전대학교.
- 홍향숙·박수경, 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49-59.
- 伊藤セツ·天野寛子, 1994, 生活時間と生活様式. 日本:光生館.
- Rice A.S. & Tucker S.M., 1986, Family Life Management 6ed., N.Y.; Macmillan Publishing Co..